

“내년엔 3할타자”... 박찬호 ‘뜨거운 겨울’ 준비

올 133경기 타율 0.260·131 안타
 도루 39개로 ‘2019 도루왕’
 침체된 KIA 타선 희망 쏘아 올려

슬럼프 겪으며 자기관리 노하우 터득
 다음 시즌 위해 몸 만들기 최선
 내년에는 꼭 가을야구 하겠다

2019시즌 KIA타이거즈의 ‘희망’이 된 박찬호가 ‘뜨거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박찬호는 지난해 가을 팀에 복귀해 새 출발선에 섰다. “군대에 가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 진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다”고 각오를 밝혔던 박찬호는 12월과 1월 운동에 집중하면서 2019시즌을 기다렸다.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마음 같은 시작은 아니었다. 대만 캠프에서 시즌 준비를 시작한 박찬호는 캠프 막바지 1군 오기나와 캠프로 이동해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개막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박찬호는 4월 5일 복귀 시즌을 시작했다.

시즌이 끝난 뒤 박찬호는 ‘도루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133경기에 나와 541타수 131안타, 타율 0.260을 찍은 박찬호는 49타점 60득점, 39도루를 기록했다.

박찬호는 지난겨울이 올 시즌의 바탕이 됐다고 말한다.

박찬호는 “작년에 처음으로 열심히 해봤다(웃음). 겨울에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됐다”며 “다음 시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는 12월, 1월에 달린 것 같다. 작년에 경험을 해봐서 안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박찬호는 ‘신체적인 성장’을 이번 마무리 캠프의 목표로 삼았다. 스프링캠프까지 차근차근 풀시즌을 뒀 수 있는 몸을 만들겠다는 각오지만 우선은 회복이 박찬호의 숙제다. 박찬호는 캠프 첫날 무릎 부상을 당해 재활조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희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2019시즌이었다. 박찬호는 기대 이상의 타격과 질주로 KIA 팬심을 달래준 희망이었다. 박찬호 개인적으로도 희망을 봤다. 수비형 선수로 여겨지던 박찬호는 뜨거운 타격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꾸준함이라는 답을 찾아야 한다.

박찬호는 “마지막이 어렵지만 나도 하면 된다는 희망을 봤다. 안 좋았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론했다.

시즌 중반 찾아온 슬럼프 극복을 위해 박찬호는 자신과 선배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박찬호는 “베터랑 선배에게 물어봐도 답을 찾지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가 복귀 첫해 도루왕에 오르며 2019시즌의 ‘깜짝 스타’가 됐다. 사진은 지난 6월 21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싸늘이 3루타를 터트린 뒤 포효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힘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으면 거의 돌아오는 말이 ‘답이 없다’였다”며 “굳이 찾는다면 털어내야 되겠다(볼을) 골라야 하는 것 같다. (최)형우 선배 보면 유지가 된다. 그걸 보면 안 좋을 때일수록 더 볼넷으로 출루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6월 LG와의 원정 시리즈. 6월 21일 1차전에서 만루주자를 쓸 어 답은 3루타로 재역전극을 연출한 박찬호는 6월

23일에는 5안타쇼를 펼쳤다.

박찬호는 “개인적으로 역전 3루타 치고 진짜 행복했다. 또 그 시리즈에서 5안타를 쳤는데 5안타를 치고 나서 다음 (6번째) 타석에 들어갈 때 함성이 대단했다”며 “3개 치고나니까 (이)명기 형이 ‘이런 날에는 어떻게 쳐도 안타가 나온다’고 그랬다. 정말 5안타를 쳤다”고 웃었다.

시즌 마지막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타

율이 푹 떨어졌고, 가장 자신 있는 수비에서도 제 몫을 못했다. KIA는 시즌 막바지 야수진의 실책 연발로 고전을 했다.

박찬호는 “수비가 마음에 걸렸다.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대부분 경험이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내가 제일 많이 뛰었고, 거기서 중심이 되어야 했는데 나까지 같이 흔들려서 진짜 미안했다”며 “평소처럼 하면 됐는데 못했다. 풀타임을 뛰

어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건 핑계라고 생각한다. 진짜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일찍 끝난 올 시즌도 아쉽다. 박찬호는 내년에는 꾸준하게 역할을 하면서 가을잔치를 즐기겠다는 각오다.

박찬호는 “열심히 준비해서 타격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을 야구도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

‘초반 성적’ 광주 - 전남 운명 갈랐다



기대와 다른 결과로 끝난 광주 FC와 전남드래곤즈의 2019시즌이었다.

K리그2 2019시즌을 앞두고 광주에는 ‘우려’ 전남은 ‘기대’의 시선이 쏠렸다.

광주는 승격을 목표로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즌 팀 화력을 담당하던 ‘3관왕’ 나상호가 FC도쿄로 이적하면서 공격력에 대한 물음표가 남았다. 처음 2부로 강등된 전남은 K리그1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파비아노 감독을 영입하며 ‘우승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36라운드 일정을 모두 끝낸 광주와 전남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았다.

광주는 전남과의 홈패배전 1-2 패배 이후 대전과의 시즌 최종전에서도 1-3으로 지며 2연패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우승팀(21승 10무 5패·승점 73)으로 K리그1에서 2020시즌을 열게 됐다.

시즌 마지막 원정에서 1위 광주를 제압하고 2-1 승리를 챙긴 전남은 아산과의 홈 패배전도 2-1로 이기며 2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3승 9무 14패(승점 48점)를 수확한 전남은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5연승으로 극적으로 4강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차지한 부천FC와는 승점 3점 차.

출발에서 결과가 달라진 2019시즌이었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와의 시즌 개막전 2-0 승리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개막전부터 득점포를 가동

광주 FC

나상호 이적에도 상쾌한 출발
 펠리페, 개막전부터 득점포 가동
 시즌 초 무패 기록하며 승승장구
 1위 독주 끝 순조롭게 우승 확정

전남 드래곤즈

첫 외국인 사령탑 파비아노에 기대
 시즌 초 연패에 불안한 출발
 공격력 부재·감독 경질에 어수선
 초반 부진 발목...막판 뒤집기 실패

한 펠리페는 2라운드 아산 그리너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무려 세 골을 폭발하면서 나상호의 공백을 지웠다.

펠리페의 질주를 앞세운 광주는 개막 후 19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우승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시즌 첫 단추를 잘 끼운 광주는 1위 독주 끝에 33

라운드 안양전 4-0 승리와 함께 우승을 확정했다.

반면 전남은 아산무궁화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0-3으로 졌고, 2라운드 대전전도 1-3으로 내줬다. 3라운드 FC안양전에서 1-0 승리를 만들었지만, 4라운드에서 전개된 광주와의 시즌 첫 ‘엘로 더비’에서 1-2로 지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기대했던 화력이 주춤하면서 전남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21라운드에서 ‘최하위’ 서울이랜드에 0-1로 지며 2연패에 빠진 전남은 결국 파비아노 감독 경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파비아노 감독은 21라운드까지 6승 4무 11패(승점 22), 8위라는 성적에 그치면서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사령탑 교체 후에도 전남은 두 경기에서 승리를 만들지 못했다. 24라운드 아산과의 홈경기 2-0 승리로 5경기 만에 승리를 장식한 전남은 이후 화력 점화에 성공했다.

이후 4경기에서 10골을 몰아넣으며 1승 3무를 기록했다. 난쟁이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3-3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바이오를 앞세운 전남은 막판 순위 싸움의 다코호스로 등극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4강 가능성도 열렸지만, 초반 극심했던 부진에 발목 잡히면서 막판 뒤집기에는 실패했다.

결국 초반 분위기에서 흐름이 갈린 광주와 전남은 내년 시즌 다른 무대에서 각각 ‘잔류’와 ‘승격’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틀 태극전사들 도전 8강서 마침표

U-17 월드컵 멕시코에 0-1 패...광주출신 신승훈·엄지성 맹활약

한국 축구대표팀의 U-17 월드컵 우승을 향한 행진이 4강 문턱에서 아쉽게 막을 내렸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이 11일 브라질 비토리아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FIFA U-17 월드컵 8강전에서 멕시코에게 0-1로 패배했다.

멕시코는 2005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U-17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강자’이었다. 지난 6일 멕시코는 일본을 2-0으로 누르고 8강전에 올랐다.

이날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47%대 53%의 볼 점유율, 12회의 슈팅(멕시코 13회)을 선보이며 팽팽히 맞섰으나, 운이 따르지 않았다.

전반 14분 엄지성(금호고)이 만든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컸다. 멕시코의 공을 뺏은 엄지성이 상대 페널티 지역 앞까지 이어지는 긴 패스를 최민서(포항제철고)에게 연결시켰다. 최민서는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전반 22분 이태석(오산고)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안쪽으로 깊숙이 침투한 최민서가 슈팅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살짝 빗맞아 골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다.

한국은 전반 35분 수비 중 발목을 잡힐려 부상(왼쪽 발목 염좌)을 입은 중앙 수비수 홍성욱(부경고)을 이번 대회 첫 출전하는 방우진(오산고)과

급히 교체하기도 했다.

전반은 순식간에 기울어졌다. 후반 32분 오른쪽 측면에서 호세 루이스가 올린 크로스를 알리 아빌라가 헤더로 골대 오른쪽에 꽂아넣으며 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후반 37분 홍윤상(포항제철고)을 교체 투입하며 서둘러 동점골을 터뜨리려 했으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후반 41분 골 지역에서 정상빈(대안고)이 헤더 슈트를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종료 휘슬을 불기 직전인 후반 50분, 코너킥 기회를 얻은 한국은 골키퍼 신승훈까지 가세해 골문을 노렸으나, 홍윤상의 헤더슛이 골대 왼쪽으로 흘러나가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편 이번 8강전은 10년 만에 달성한 한국 대표팀의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한국은 1987년, 2009년 두 차례 8강전에 올랐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 칠레, 아이티를 상대로 조별리그를 2위(2승1패)로 통과했으며, 16강 양골라전에서는 최민서의 결승골로 1-0 승리해 기대를 모았다.

이번 대회는 광주 지역 출신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골키퍼 신승훈은 양골라전에서 상대 슈팅을 수차례 선방해 주목받았다. 미드필더 엄지성도 돋보이는 침투력과 정확한 크로스를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